

외인·기관이 던진 4조를 개인 2.3조와 자사주가 받았다 — 그래도 -3.99%: 자사주만으로 지수가 서지 않는 구조가 확정됐다

어제 야간전일 -2.64%가 예고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대로 왔다. 호르무즈에서 한국 유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2척이 피격되자 1-92가 한 달여 만에 90달러를 넘었고, 미 10년물 4.8%인 인상 확률 68%·일본 10년물 3% 돌파까지 — 유가와 금리가 한 방향으로 조여드느라, 외국인 -1.92조와 기관 -2.04조가 시가총액 큰 순서로 던졌다. 개인이 +2.30조쯤 두 달여 만에 최대 규모로 받았고 자사주도 10배씩 +1.65조를 샀지만 지수는 -273p. 이틀간만 거슬림(3주째 매도 = 자사주 매수)은 "외인·기관 -3.96조 ↔ 개인·자사주 +3.95조"라는 더 큰 거물상으로 바뀌었다 — 그리고 대금 18.78조(간 차지 재정선)는 이 급매에 투자가 없었다는 것. 즉 본 쪽부터 실 떨어지겠다는 것을 알린다. 마지막 보루: 지점 6,558.30은 8/31 지점 6,547.76을 10.5p 위에서 지켰다.

▶ 본 문본멘스의 제책 및 모든 권리는 통발 주안장에게 있습니다.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사·전재·제표로 및 2차 가공을 금합니다.

코스피
6,562.72
▼273.08 (-3.99%) · 사실상 자카 마감

코스닥
803.98
▼17.27 (-2.10%) · 800선 방어

외인+기관 · 당일 실적
-3조9,629억
개인 +233,024 · 자사주 +1조 6,565억

거래대금 (코스피)
18.78조
구간 최저 재정선 — 투매 없는 급락

WTI · 미 10Y
\$90.3 · 4.8%
유조선 2척 피격 · 9월 인상 확률 68%

※ 마수선 명시: 수급 브리핑 마감편(버사자) [0785]·통발 주안장에게 있습니다.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사·전재·제표로 및 2차 가공을 금합니다. 한을 1,368테는 전일 하한 종가 1,374.03 대비 하락 기동(리트릭).

가을상이 커졌다 — "외인·기관 -3.96조 ↔ 개인·자사주 +3.95조", 그런데 지수는 -273p
이틀간 2배쯤 큰 자사주 열에 개인 +2.30조와 950억 2배 시 인프라 수요 우리 일부 물렸고 — 디라버리전 — 앞는 쪽은 돈을 저주를 물려올리는 돈이 아니라 버리는 것을 줘는 돈이다. 성적이 다른 리트릭의 교환은 가격을 지키지 못한다.

① 외인·기관 -3조9,196억
시총 상위 디라버리전 · 코스닥은 전향
매도: 하이닉스·삼성 SK스캐어·원데이터
어제 6월 말에 막상한 하이닉스(+1362)를 하루 만에 대 1위로 — "해지 청산+단발"로 판정 확정. 매수는 이수페타시스(+0.81%), 외국인(외국인 1위)·대만항공-GS 등 소수. 코스닥은 +629억 순매수 전환(원발)
돈이 배진 났 ▲ (시총 30위 전일)
반도체 투매 SK — SK스캐어 -7.97% · SK — 7.00% · 하이닉스 -4.73% · 삼성 -4.02% (아제 SK그룹 재평가 하루 만 반발)
조선·전력·원전 — HD현대일련 -7.54% · HD현대중공업 -6.84% · HD한국조선해양 -6.79% · 현대오일뱅크 -6.71% · 두산에너지 -5.90% · 효성중공업 -5.18% (9월 90억 해양물류펀드 매도 급락) 상금)
자동차 — 현대 -6.31% · 현대차 -5.62%(8월 판매 -14.2%) · 기아 -5.18%(매도 +5%연도 일괄 매도)
2차지주 — 삼성SDI -5.45% · LG에너지솔루션 -5.31% · SK이노베이션 -2.81%(ESS 플리서를 만 반발)
재료 역행 2인 주가 — 삼성전기 -2.10%(1조722억 MLCX 계약·매도) · 알테오전 -0.83%(노바티스 최대 4.4조 매도)
② 기관 -2조433억
금투 -1조4,310 — 전일 5.2배
매도: 삼성하이닉스·원데이터·원데이터
부산 -1,416억(금투 -1,226억) · 외국인 같은 폭락을 겪은 순서로: 한국인(한국인 지수 축소: 매수는 삼성 SDI·메리타스(+3.51%) · 삼성 — 어제 "메리타스 ETF 매수"의 영향과 하루 만에
③ 개인 +233,024 · 자사주 +1조6,505억
받는 순의 투기 · 10일째 기계 매수
합산 +339,529억
개인도 조전가 11월 누적(+1,717)을 작위에 남는 매수 — 6월의 "외인·기관"이 "개인"이 "자사주"로 바뀌고, 자사주 투매 +15,058(95% 조의 27%) · 그러나 둘 다 하락을 사는 돈이 영향을 만드는 돈이 아니었다

돈이 들어간 곳 ▲ (종교 블록)
반도체 공장 장비 — ①아이 (+14.82%) · 종구석유 +13.32%(유가 회복) · 아스플로 +12.62% · 엑시온 +11.69% · 와이맥 +7.89% — 기관 매수 + 수급 호조. 급락의 역행
이수페타시스 +0.81% — 외국인 순매수 1위: 델 시 서버 수주권 950억(2배) · 고다중 PCB 기대
메리타스(금융지주) +3.51% — 급락일 금융지주 매수의 정점, 노바티스 (+2.11%)(기린)
단기 테마 — 남북 경제협력·철도·전기 중공업주에 자금 집중 (지수 급락일의 폐지시)

하이너스 퇴출상 당할까 — 어제 +1,362 → 오늘 매도 1위: 혼합 신호는 "해지 청산+단발"로 판정
재료 역행 2인 주가 — 삼성전기 1조722억 알테오전 4.4조 계약까지 하락: 급락장에서 개별 호재의 유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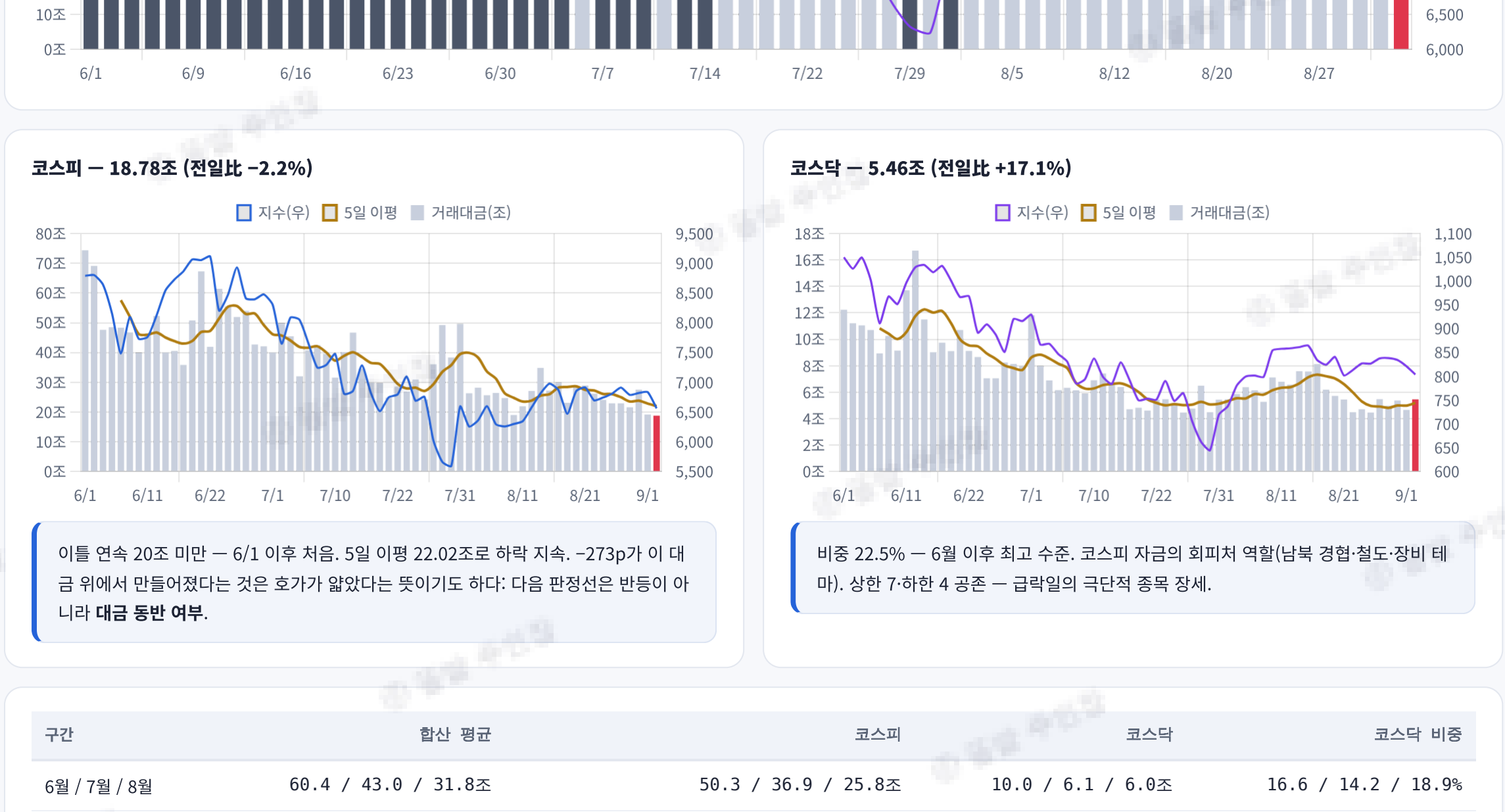
한 줄 판정: 오늘 확정된 것은 두 가지다 — ① 자사주는 완충제지 방향타가 아니다(테스트 실패) ② 그래도 투매는 없었다(대금 최저 재정선 2.3조 매수·지점 방어). 유가 90과 금리 4.8%가 풀리지 전까지 자사의 방향은 본에서 정해지고,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6,547.76이 깨지나쁘지만이다. 오늘 말 브로트럼이 잘 걸릴까.

① 전일(9/1) 관련 포인터 판정
① 자사주: 스트레스 테스트 -1.362를 하루 만에 대 1위로 — "해지 청산+단발"로 판정 확정
② 1위 하이닉스 외인 퇴출상 이틀째 — 디라버리전 · 매도: 삼성하이닉스(+1362)를 하루 만에 대 1위로 — "해지 청산+단발"로 판정 확정. 매수는 이수페타시스(+0.81%), 외국인(외국인 1위)·대만항공-GS 등 소수. 코스닥은 +629억 순매수 전환(원발)
③ 수급 — 부동·정비 확산 — 역발행·부동 · 대형 부동(상장전 -2.10)은 실패였으나 후공정 장비(다이아 +14.82·아스플로 +12.62·엑시온 +11.69·와이맥 +7.89)와 고다중 PCB(아수페타시스 외인 1위)가 급락일에 역행 — 확산이 대안이 아닌 중상향 정비로 출현
④ ESS 3일차 — 반발 · SK이노 -2.81(유가 90매도)·SDI -5.45(LG매도) -5.31 — 작속 강공제로 사를 만 되돌림
⑤ 코스닥 외인·기관 동반 순매수 — 원전 · 와이맥 +629 전향 / 기관 -2,320 하락
⑥ 코닥유가 — 리트릭 · WTI 90의 10Y 4.8%인 인상 확률 68%(금요일 아침 38%)·일본 3% 돌파
⑦ 브로트럼 — 오늘 밤 1:00 내일 아침 1:00 (월 기아인식 상향은 선행 신호)
⑧ 개인·자사주 3일째 — 디라버리전 · 매도: 하이닉스(+1362)를 하루 만에 대 1위로 — "해지 청산+단발"로 판정 확정. 매수는 이수페타시스(+0.81%), 외국인(외국인 1위)·대만항공-GS 등 소수. 코스닥은 +629억 순매수 전환(원발)
⑨ [아들] [0797]·엑스퍼티스·루트·원데이터·소각 공시 · 미수신

한 줄 판정: 오늘 확정된 것은 두 가지다 — ① 자사주는 완충제지 방향타가 아니다(테스트 실패) ② 그래도 투매는 없었다(대금 최저 재정선 2.3조 매수·지점 방어). 유가 90과 금리 4.8%가 풀리지 전까지 자사의 방향은 본에서 정해지고,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6,547.76이 깨지나쁘지만이다. 오늘 말 브로트럼이 잘 걸릴까.

가래대금 — 급락일에 대금이 최저: 투매 없는 하락

결정적 증거: -3.99% 급락일의 코스피 대금이 18.78조(-2.2%)로 **구간 최저를 다시 갱신했다**. 8/19 -5.80% 때는 투매와 함께 가격이 폭등했지만 오늘도 반대 — 파는 쪽(외인·기관 4조)은 급하지 않게 팔았고, 사는 쪽은 개인과 자사주뿐이었다. **공포의 급락이 아니라 매수 실종의 급락**이며, 이는 반등에도 같은 문제를 남겼다: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진 시장은 팔 사람이 지쳐야 된다는. 코스닥 5.46조(+17.1%, 비중 22.5%)만 들어난 것은 급락 지점의 중상향 이동.



수급 — 가을상의 확대: 4조를 던지고 4조를 받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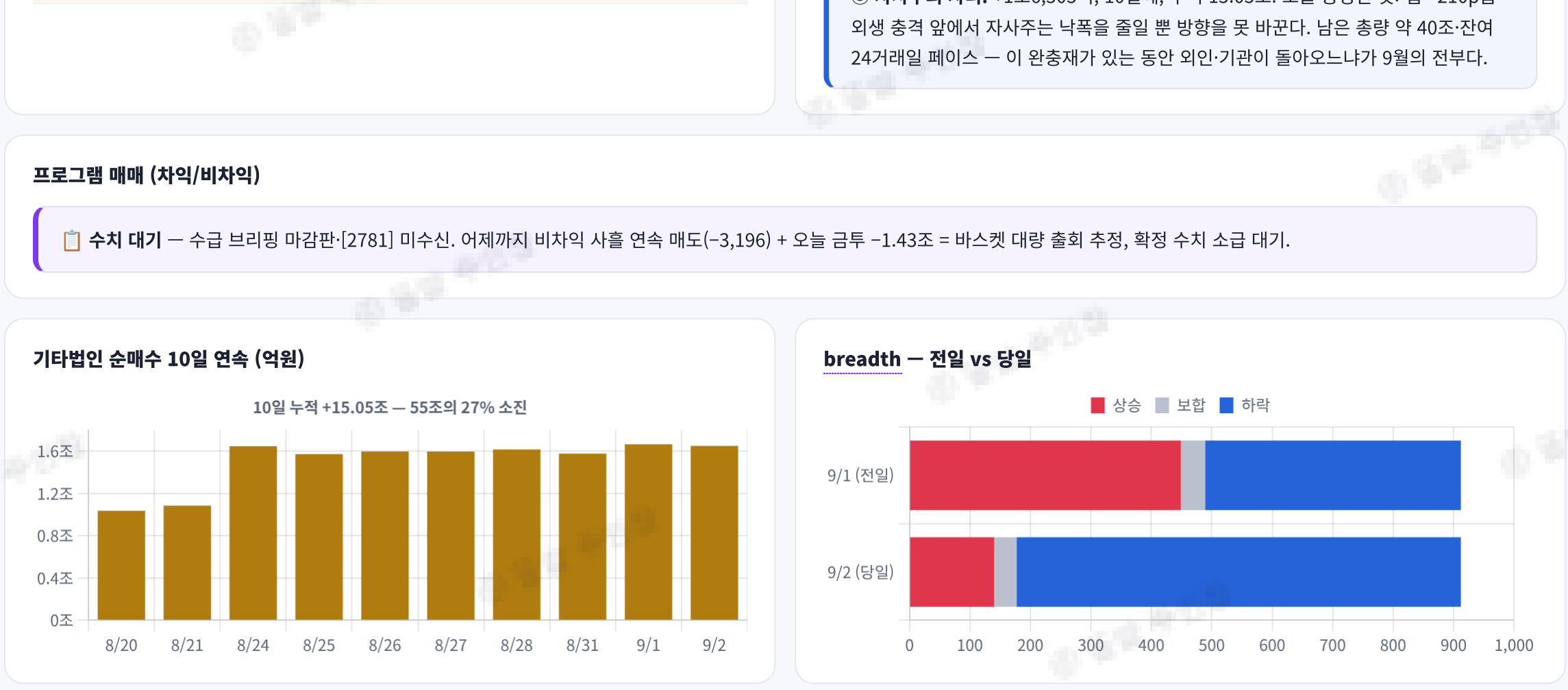
가래대금 — 급락일에 대금이 최저: 투매 없는 하락

결정적 증거: -3.99% 급락일의 코스피 대금이 18.78조(-2.2%)로 **구간 최저를 다시 갱신했다**. 8/19 -5.80% 때는 투매와 함께 가격이 폭등했지만 오늘도 반대 — 파는 쪽(외인·기관 4조)은 급하지 않게 팔았고, 사는 쪽은 개인과 자사주뿐이었다. **공포의 급락이 아니라 매수 실종의 급락**이며, 이는 반등에도 같은 문제를 남겼다: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진 시장은 팔 사람이 지쳐야 된다는. 코스닥 5.46조(+17.1%, 비중 22.5%)만 들어난 것은 급락 지점의 중상향 이동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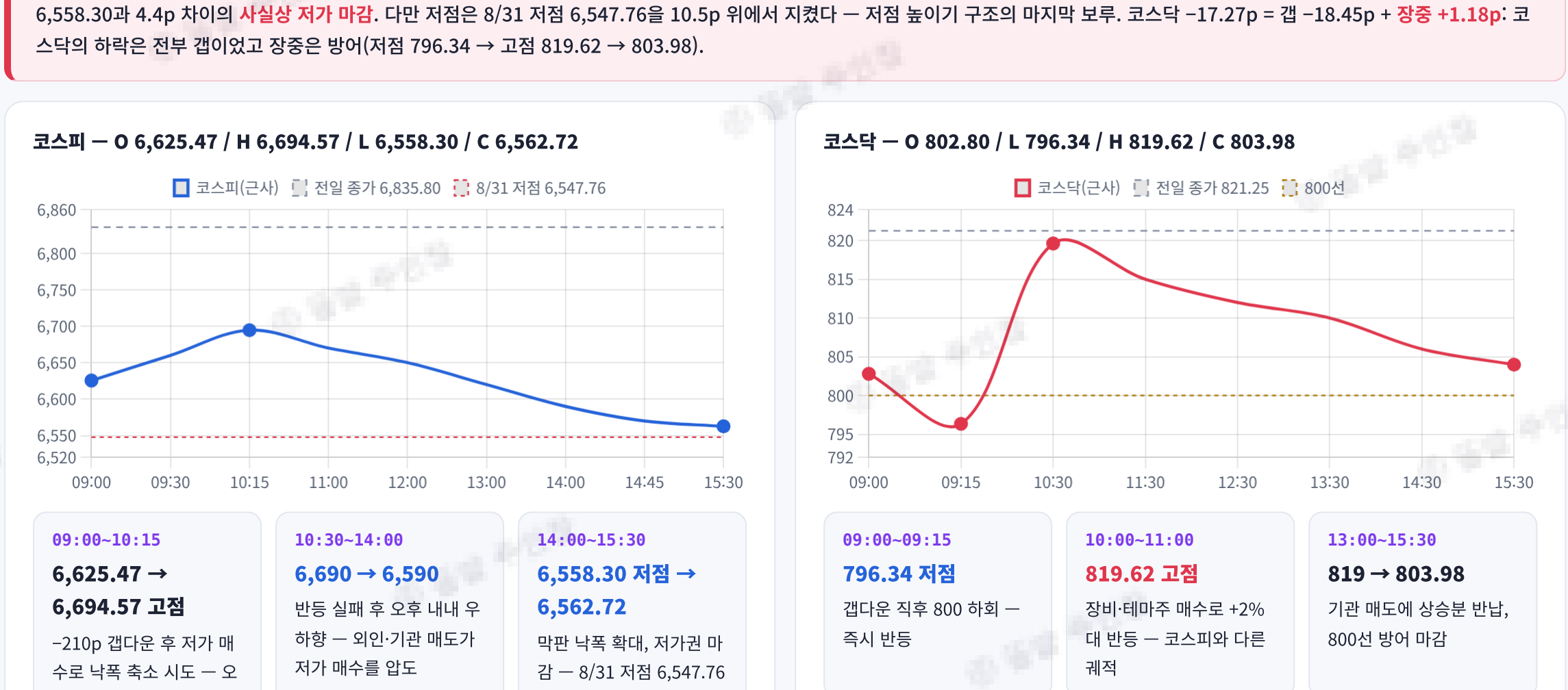
가래대금 — 급락일에 대금이 최저: 투매 없는 하락

결정적 증거: -3.99% 급락일의 코스피 대금이 18.78조(-2.2%)로 **구간 최저를 다시 갱신했다**. 8/19 -5.80% 때는 투매와 함께 가격이 폭등했지만 오늘도 반대 — 파는 쪽(외인·기관 4조)은 급하지 않게 팔았고, 사는 쪽은 개인과 자사주뿐이었다. **공포의 급락이 아니라 매수 실종의 급락**이며, 이는 반등에도 같은 문제를 남겼다: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진 시장은 팔 사람이 지쳐야 된다는. 코스닥 5.46조(+17.1%, 비중 22.5%)만 들어난 것은 급락 지점의 중상향 이동.



가래대금 — 급락일에 대금이 최저: 투매 없는 하락

결정적 증거: -3.99% 급락일의 코스피 대금이 18.78조(-2.2%)로 **구간 최저를 다시 갱신했다**. 8/19 -5.80% 때는 투매와 함께 가격이 폭등했지만 오늘도 반대 — 파는 쪽(외인·기관 4조)은 급하지 않게 팔았고, 사는 쪽은 개인과 자사주뿐이었다. **공포의 급락이 아니라 매수 실종의 급락**이며, 이는 반등에도 같은 문제를 남겼다: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진 시장은 팔 사람이 지쳐야 된다는. 코스닥 5.46조(+17.1%, 비중 22.5%)만 들어난 것은 급락 지점의 중상향 이동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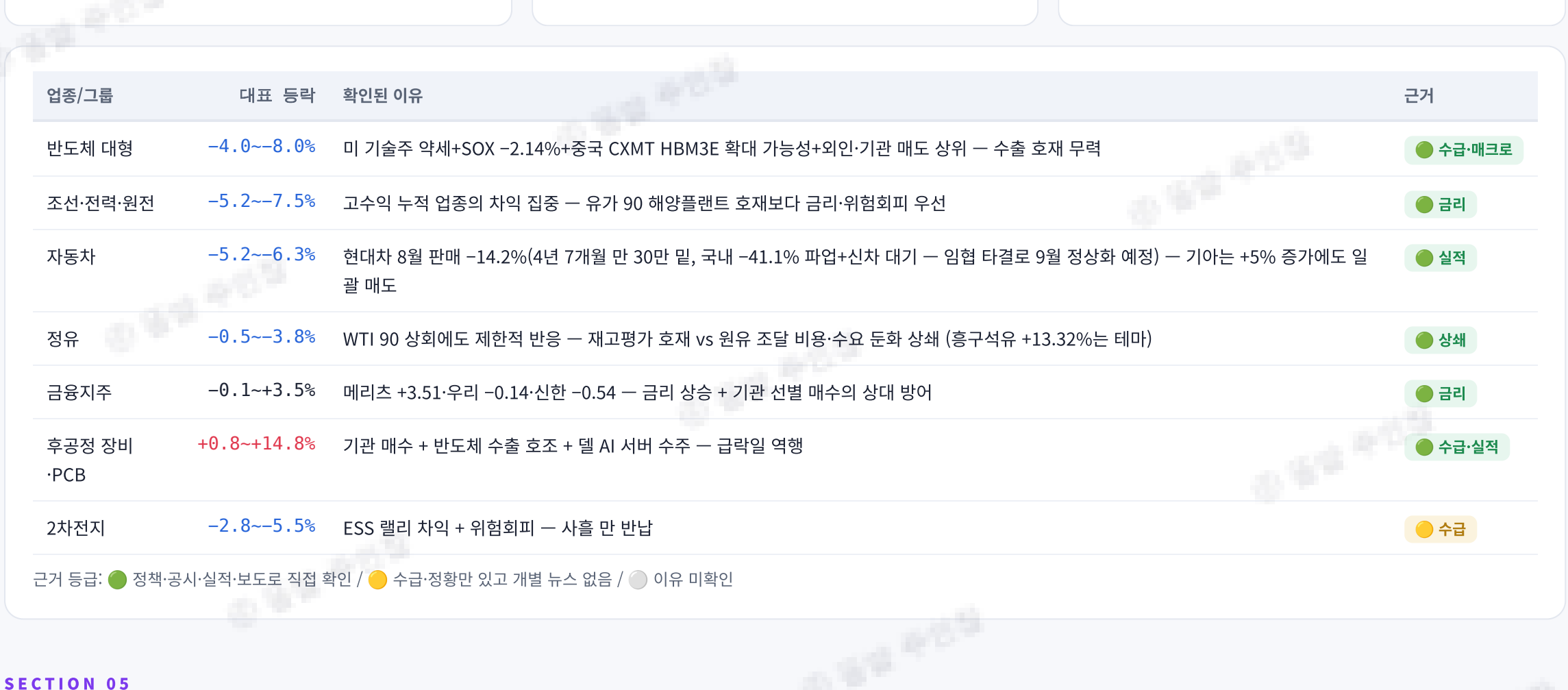
가래대금 — 급락일에 대금이 최저: 투매 없는 하락

결정적 증거: -3.99% 급락일의 코스피 대금이 18.78조(-2.2%)로 **구간 최저를 다시 갱신했다**. 8/19 -5.80% 때는 투매와 함께 가격이 폭등했지만 오늘도 반대 — 파는 쪽(외인·기관 4조)은 급하지 않게 팔았고, 사는 쪽은 개인과 자사주뿐이었다. **공포의 급락이 아니라 매수 실종의 급락**이며, 이는 반등에도 같은 문제를 남겼다: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진 시장은 팔 사람이 지쳐야 된다는. 코스닥 5.46조(+17.1%, 비중 22.5%)만 들어난 것은 급락 지점의 중상향 이동.



가래대금 — 급락일에 대금이 최저: 투매 없는 하락

결정적 증거: -3.99% 급락일의 코스피 대금이 18.78조(-2.2%)로 **구간 최저를 다시 갱신했다**. 8/19 -5.80% 때는 투매와 함께 가격이 폭등했지만 오늘도 반대 — 파는 쪽(외인·기관 4조)은 급하지 않게 팔았고, 사는 쪽은 개인과 자사주뿐이었다. **공포의 급락이 아니라 매수 실종의 급락**이며, 이는 반등에도 같은 문제를 남겼다: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진 시장은 팔 사람이 지쳐야 된다는. 코스닥 5.46조(+17.1%, 비중 22.5%)만 들어난 것은 급락 지점의 중상향 이동.



가래대금 — 급락일에 대금이 최저: 투매 없는 하락

결정적 증거: -3.99% 급락일의 코스피 대금이 18.78조(-2.2%)로 **구간 최저를 다시 갱신했다**. 8/19 -5.80% 때는 투매와 함께 가격이 폭등했지만 오늘도 반대 — 파는 쪽(외인·기관 4조)은 급하지 않게 팔았고, 사는 쪽은 개인과 자사주뿐이었다. **공포의 급락이 아니라 매수 실종의 급락**이며, 이는 반등에도 같은 문제를 남겼다: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진 시장은 팔 사람이 지쳐야 된다는. 코스닥 5.46조(+17.1%, 비중 22.5%)만 들어난 것은 급락 지점의 중상향 이동.



가래대금 — 급락일에 대금이 최저: 투매 없는 하락

결정적 증거: -3.99% 급락일의 코스피 대금이 18.78조(-2.2%)로 **구간 최저를 다시 갱신했다**. 8/19 -5.80% 때는 투매와 함께 가격이 폭등했지만 오늘도 반대 — 파는 쪽(외인·기관 4조)은 급하지 않게 팔았고, 사는 쪽은 개인과 자사주뿐이었다. **공포의 급락이 아니라 매수 실종의 급락**이며, 이는 반등에도 같은 문제를 남겼다: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진 시장은 팔 사람이 지쳐야 된다는. 코스닥 5.46조(+17.1%, 비중 22.5%)만 들어난 것은 급락 지점의 중상향 이동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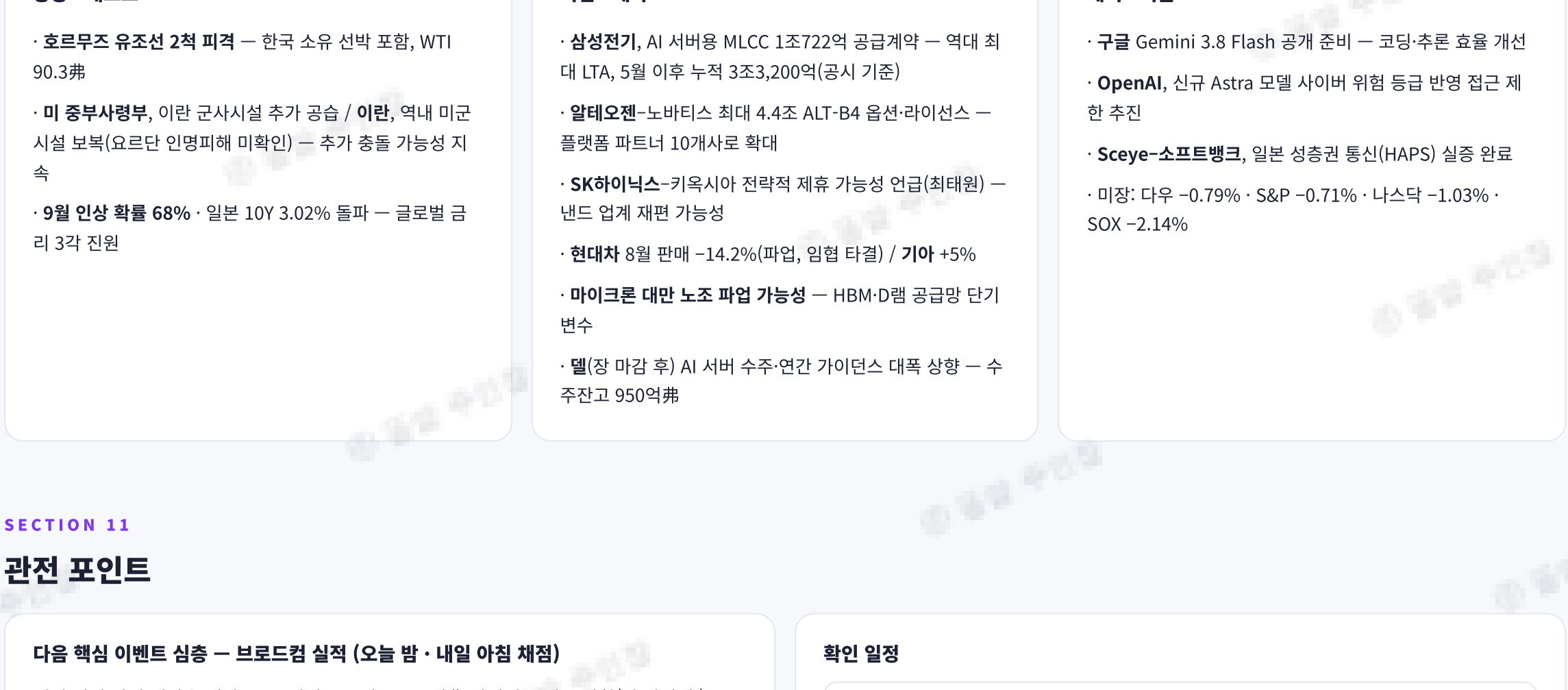
가래대금 — 급락일에 대금이 최저: 투매 없는 하락

결정적 증거: -3.99% 급락일의 코스피 대금이 18.78조(-2.2%)로 **구간 최저를 다시 갱신했다**. 8/19 -5.80% 때는 투매와 함께 가격이 폭등했지만 오늘도 반대 — 파는 쪽(외인·기관 4조)은 급하지 않게 팔았고, 사는 쪽은 개인과 자사주뿐이었다. **공포의 급락이 아니라 매수 실종의 급락**이며, 이는 반등에도 같은 문제를 남겼다: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진 시장은 팔 사람이 지쳐야 된다는. 코스닥 5.46조(+17.1%, 비중 22.5%)만 들어난 것은 급락 지점의 중상향 이동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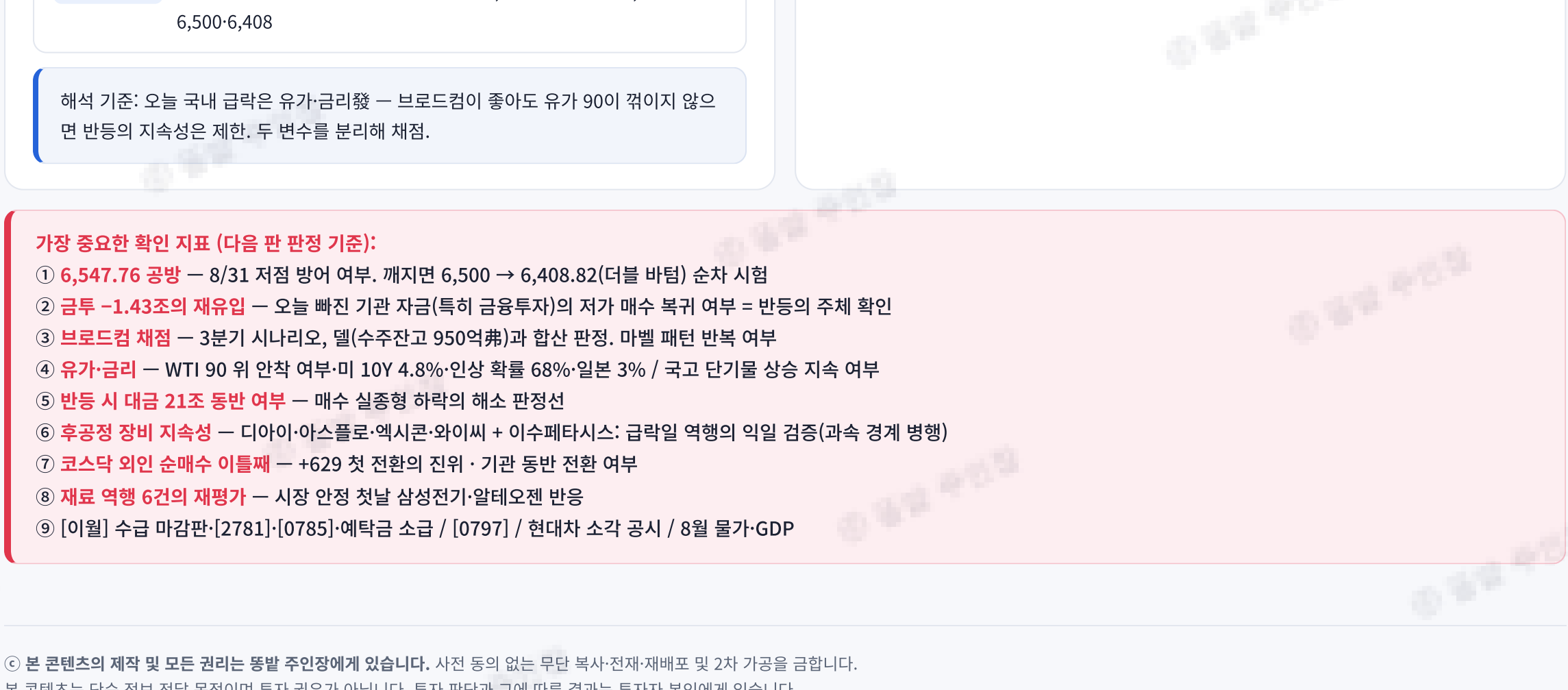
가래대금 — 급락일에 대금이 최저: 투매 없는 하락

결정적 증거: -3.99% 급락일의 코스피 대금이 18.78조(-2.2%)로 **구간 최저를 다시 갱신했다**. 8/19 -5.80% 때는 투매와 함께 가격이 폭등했지만 오늘도 반대 — 파는 쪽(외인·기관 4조)은 급하지 않게 팔았고, 사는 쪽은 개인과 자사주뿐이었다. **공포의 급락이 아니라 매수 실종의 급락**이며, 이는 반등에도 같은 문제를 남겼다: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진 시장은 팔 사람이 지쳐야 된다는. 코스닥 5.46조(+17.1%, 비중 22.5%)만 들어난 것은 급락 지점의 중상향 이동.



가래대금 — 급락일에 대금이 최저: 투매 없는 하락

결정적 증거: -3.99% 급락일의 코스피 대금이 18.78조(-2.2%)로 **구간 최저를 다시 갱신했다**. 8/19 -5.80% 때는 투매와 함께 가격이 폭등했지만 오늘도 반대 — 파는 쪽(외인·기관 4조)은 급하지 않게 팔았고, 사는 쪽은 개인과 자사주뿐이었다. **공포의 급락이 아니라 매수 실종의 급락**이며, 이는 반등에도 같은 문제를 남겼다: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진 시장은 팔 사람이 지쳐야 된다는. 코스닥 5.46조(+17.1%, 비중 22.5%)만 들어난 것은 급락 지점의 중상향 이동.



가래대금 — 급락일에 대금이 최저: 투매 없는 하락

결정적 증거: -3.99% 급락일의 코스피 대금이 18.78조(-2.2%)로 **구간 최저를 다시 갱신했다**. 8/19 -5.80% 때는 투매와 함께 가격이 폭등했지만 오늘도 반대 — 파는 쪽(외인·기관 4조)은 급하지 않게 팔았고, 사는 쪽은 개인과 자사주뿐이었다. **공포의 급락이 아니라 매수 실종의 급락**이며, 이는 반등에도 같은 문제를 남겼다: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진 시장은 팔 사람이 지쳐야 된다는. 코스닥 5.46조(+17.1%, 비중 22.5%)만 들어난 것은 급락 지점의 중상향 이동.

